제 6강 존재론/형이상학: 자유의지와 결정론

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?

※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
기독교: 카인의 살인, 사탄의 유혹
역사유물론: 만약 역사가 법칙적이라면,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?
생활: 만약 세상이 결정되어 있다면,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에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.

1. 엄격한(극단적) 결정론
① 기본 입장: "자유 선택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, 따라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."
- 인간의 행위는 성격에서 유래하며, 성격은 타고나거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성격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. 따라서 자유롭다는 것은 주관적 착각에 불과하다.
예) 헤겔의 '이성의 간지', 트루먼 쇼
※ 결정론의 양태
종교: 모든 것은 신의 예정된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.-예정설
역사: 모든 역사는 법칙적으로 발전한다.-마르크스주의 역사철학
철학: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사건에 따라서만 발생한다.-인과적 결정론
- 환경결정론, 유전자결정론

② 문제점
-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?
-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성격에 거슬리는 행위를 자주 한다. 그렇다면 이 역시도 성격인가? 그렇다고 대답한다면, 이는 **반증이 불가능한 종류의 주장**이 되므로 유의미한 주장이 될 수 없다.
- 이들의 주장대로라면, 도덕적 주장이나 명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야 한다.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.
- "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"는 것이 이들의 근본 전제이다.
⇒ 인과성은 결정론의 충분조건이 아니다.
⇒ 위의 명제는 종합 명제인데, 이 경우 '모든'에 해당할 만큼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 졌는가가 의문이다.
- 결정론과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문제

대체로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는 미래의 사건은 모두 결정되어 있고, 따라서 결정의 원리만 안다면, 최후의 순간까지 예측가능하다고 생각한다.
문제점: '결정되어 있다'는 말을 너무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다.
① '선행사건에 의해 조건지워져 있다', 즉 모든 사건은 인과적이다.
② '모든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.'
⇒ ①과 ②가 항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.
⇒ 즉 인과성은 결정론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.
즉, 인과론을 인정하면서도 결정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예) 카오스이론, 랜덤 방식
사물에 적용되는 인과성과 인간 행위(심리)에 적용되는 인과성은 그 개념적 특성이 다 를 수 있다. 즉 전자는 외적 원인만을 인정하지만, 후자는 내적 원인 또는 자발적 원 인을 인정할 수도 있다.

2. 비결정론 또는 자유 의지론(심신 이원론자 또는 유심론자)

가) 자유의 의미
1) 자유에 대한 소극적 정의: '속박이나 제한으로부터 벗어남'
- 속박이나 제한의 대표적 유형: 사회와 자연
①사회적 속박: 제도적 강제, 타인의 강제 등등
②자연적 속박: 신체적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제한(본능에 의한 제한)-타율
자연적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제한: 베이컨-아는 것이 힘이다.
헤겔: '자유란 필연성의 통찰이다.'
※ 철학이란 자연성과 인위성의 합일이다.
이것의 가능성은? 바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일이다.

2)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
- 절대적 자유: 자기 존재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
- 자율로서의 자유: 자기 행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: 이성적 존재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로서 본능으로부터 비롯되는 타율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.
- 심리적 착각으로서의 자유: 자유에 대한 부정

① '자유로운 행위':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산물이 아닌, 인간의 인격성으로부터 비롯한 행위를 의미해야 한다.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선행하는 그 어떠한 원인으로

부터도 제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.

② 기본 입장: 인간의 행위에는 행위자 내부나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요인으로부터도 벗어난 완전히 자유로운 행위가 있다. 그리고 그 행위는 인격으로부터 비롯되며,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.

③ 기본 전제: 비결정론자는 '자아의 본성'과 '자아의 성격'을 구분하고 있으며, 나아가 인간에게는 성격 외에도 '자아의 본성'에 해당하는 그 무엇 즉 인격이 있다고 주장

④ 문제점:

- 옳은 것을 하고자 욕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비록 타인의 관점에서는 욕구를 벗어나(편한 것을 벗어나)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.

예) 칸트;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와 의무에 적합한 행위

- 자유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'자아의 본성'이 있음을 증명하기 곤란하다. 나아가 '자아의 본성'과 '자아의 성격'이 어떻게 다른지도 의문시 된다.

3. 온건한(유연한) 결정론

① 기본 입장: 결정론의 원리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병립시키고자 함.

결정론의 입장으로부터는 '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'는 인과 원리를 수용하고 비결정 론으로부터는 '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다'는 명제를 수용한다.

② 기본 주장: "원인을 가지고 일어난 행동을 강요된 행동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."

③ 인과성의 두 측면: 자연과학-필연성(강제된 힘, 달리 할 수 없음), 외적 원인

인간행위-강제된 힘이 아닌 일종의 동기, 자기 언급 체계

④ 문제점

- '행위에 원인이 있다'는 말에서의 원인과 'A당구공의 운동이 원인이 되어....'라고 할 때의 원인이라는 말의 함의가 다르다면, '인간 행위'에는 원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며, 따라서 자유의지론자와 유사해진다.

- '인과성'이 '결정론'의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행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.